

濟州島方言“ㅈ, ㅊ”音에 對하여

玄 平 孝

차 례

1. 緒 言
2. 標準語ㅈ, ㅊ에 對한 方言 母音考察
 - (1) 方言同義語에서의 ㅈ, ㅊ音
 - (2) 方言에서의 ㅈ音
 - (3) 方言에서의 ㅊ音
 - (4) 方言에서의 ㅈ, ㅊ音에 對한 吟味
3. 方言音素로서의 ㅈ, ㅊ母音設定
4. 結 語

1. 緒 言

1. 1 言語表現(utterance)의 個人差나 方言差란 子音에서보다 母音에서가 더 甚하는 것 같다. 標準語(서울方言?)의 母音에 對해서 그 音素數를 設定함에 있어서도 學者에 따라 差異 있음을 본다. 李熙昇氏는 單母音을 “/i/, /e/, /æ/, /a/, /ə/, /o/, /u/, /ü/, /ø/, /y/”의 열이라 하였고 (註1) 崔鉉培氏는 홀소리로서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의 아홉뿐이라 하였다. (註2) 許雄氏는 個人差가 甚한 /ø/, /y/까지 합해서 “/i/, /e/, /ε/, /a/, /o/, /u/, /ə/, /ü/, /y/, /ø/”의 열이라 하였고 (註3) 김석득氏도 “/i/, /e/, /ε/, /y/, /ø/, /i/, /a/, /u/, /o/, /o/”의 열을 單母音으로 認定하여 놓았다. (註4) 또 金順洙氏는 “/i/, /e/, /ε/, /a/, /Λ/, /o/, /u/, /i/, /ø/, /y/, /ø/”의 열하나를 單母音으로 認定하

여 내었다.(註5) 그런데 이들 母音의 方言間에 있어서의 差異란 더욱 甚하다. 標準語에는 / ϕ /음이 없다고 하는데(註6) 全羅道方言에서는 分明히 發音된다고 한다.(註7) 또 위에 列擧한바에 依하면 標準語의 母音數는 아홉 乃至 열하나로 되어 있는데 慶尙道 一部方言의 單母音數는 겨우 “/i/, /e/, /a/, /o/, /u/, / α /”의 여섯뿐이라한다.(註8) 即 慶尙道 一部 方言에서는 “에”와 “애”는 전혀 區別되어지지 않고 또 “어”와 “으”도 區別되어지지 않아 “어”로 發音되며 “외”는 大體로 “에”로 發音된다고 한다.(註9) 이 慶尙道 一部方言에서는 尙혀 區別되어지지 않는다는 “e”와 “ ϵ ”음이 濟州島 方言에서는 어떠한지? 다시 말하면 濟州島 方言에서 “e”와 “ ϵ ”음은 音韻論的으로 서로 對立되어서 各各 別個의 音素로 存在하는지? 안하는지?

近者에 方言調査次 濟州島에 來往하는 分들은 濟州島 方言에서 “e”와 “ ϵ ”는 잘 區別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Native speaker(原語民, 話者)들의 音韻意識은 어떠한 間에 Informant(資料提供者)가 發音하는 그 結果만에서는 이 두 音이 別個音素로 識別되어지지 않는다고들 한다. 果然 “e”는 濟州島 方言에서는 音韻論的으로 獨立되지 못하고 “ ϵ ” 音素의 Allophone에 不過한 것인지? 問題이다.

1. 2. 言語表現(utterance)에서 實現되는 音을 考察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가지 立場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Native speaker(原語民)의 音韻意識을 重視하여 나가는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言語學者가 Native speaker(原語民)의 發音을 忠實히 觀察해 나가는 方法이다.(註10) 前者를 主体的 立場이라 할 수 있고 後者를 觀察者的 立場이라 할 수 있다. 前者에서는 音表象(Sound image)이라 할 發音意圖(phonetic intention)같은 것을 問題삼게 된다. 例컨데 國語에서 “감[kam]”과 “김[kim]”에 있어서의 두 [g-]는 言衆들이 이것을 同一한 것으로 알고 (같은 音表象) 또 同一한 것으로 하여 發音하고 있

다. (同一한 發音意圖), 그러므로 이 두 音은 同一音素에 屬한다 할
 과 같다. 實現되어 나오는 音 自体가 問題가 아니라 言衆(話者)의
 發音意圖, 發音理想을 問題로 한다. 元來 音韻体系란 것이 Native sp.
 eaker(原語民)의 習慣이므로 이와같은 主体的 立場 即 原語民의 音
 韻意識에 依해서 考察함도 하나의 方法이겠으나 그러나 所謂 So-
 und image랄지 또는 phonic intention 이란 것은 直接 觀察할 수
 없는 것이다. 이 直接 觀察할 수 없는 것을 考察함에 있어서는 言
 語學者가 그 言語에 對해서 이미 알고 있는 境遇에는 그 知識을
 材料로 하여 考察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 言語에 對해서 쏘려 아
 는 바가 없을 境遇에는 아무래도 具體的인 一回一回의 發話에 基
 해서 考察해 나가는 觀察者的 立場을 取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方言調查要究에 있어서는 Informant(資料提供者)의 無意識中
 發話가 가장 理想的인 記述 對象이 되는 것이므로 더욱 觀察者的
 方法이 必要케 된다. 이런 點에서 Native speaker(原語民)의 具體的
 인 發話에 基해서 그 發音을 忠實히 觀察해 나가는 것이 妥當한
 方法이 아닐 수 없다.

1. 3. 1, 그런데 原語民(話者)의 具體的인 一回一回의 發音은 지
 마다 조금씩 差異가 있게 된다. 一般的으로 同一인이 同一한 環境
 에서 同一한 語音을 몇번 反復하더라도 그 音들은 各各 差異가 있
 어서 萬若 [a]면 [a¹], [a²], [a³], [a⁴]……等等으로 난다.

그러나 이 때에 各各 差異있게 나는 [a¹], [a²], [a³], [a⁴]……
 等等은 自由로이 [a]에 代置된 것으로 그것들을 서로 바꿔 넣더라
 도 말의 意味에 差異를 기저오지 않는다면 그들 音은 同一音素에
 屬하게 된다. 따라 그것들을 [a]에 對한 Free Variant(自由異音)라
 하게 된다.

1. 3. 2, 다음 音聲的 環境(Phonetic environment)이 바뀌짐에
 따라 音들이 自由로이 代置할 수 없는 여러 變異(variation)를 가
 져오는 일이 있다. 假令 “밭(田), 간밤(昨夜), 우비(雨備), 집(家)”들

에서 “ㅂ”이 [P], [b], [β], [p>]와 같이 變異한다. 그러나 國語 兩唇破裂音에서 이런 變異는 何等 말의 意味에 差異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들 音은 同一音素에 屬한다고 하게 된다. 이런 音聲的 環境(phonetic environment)이 달라짐에 따라 卽 位置의 變更으로 말미암아 變異되는 音을 Positional variant라 한다.

1. 2. 3, 그런데 위의 Free variant나 Positional variant를 言衆들은 識別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러한 音聲的 差異를 보이는 Variant가 語義를 分化시키는 機能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反하여 國語에서 “달(月), 딸(女息), 탈(假面)”이란 말들은 語頭의 子音差異로 各各 語義區分의 機能을 다하고 있다. 말하자면 語頭音이 [t]나 [tt]나 [th]나에 따라서 各各 그 語義가 區分되어 지고 있다. 卽 音聲環境 # -al # (#는 Silence)은 이 세 單語에서는 同一하나 語頭に [t], [tt], [th]가 交替되므로서 語義를 分化하고 있다. 여기서 [t], [tt], [th]가 語義區分의 機能的 單位가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音聲的 機能的 單位音을 音韻論的 差異(phonemic distinction) 또는 對立에 있다 하고 그들 各各을 獨立한 音素라 한다. 따라서 音素를 求하려면 먼저 音聲的 機能的 單位를 調査해야 할 것이요, 그것은 오직 한 要素(音)의 顯著的 差異를 보이는 對立音의 한쌍에서 求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對立音을 보이는 한쌍의 最小對語를 minimal pair라 한다. (註⑩) 國語에서 “불[pul](火)”과 “풀[phul](草)”은 minimal pair를 이루고 있으며 [p]와 [ph]는 對立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감[kam](柿)”과 “곰[kom](熊)”도 minimal pair를 이루고 있으며 [-a-]와 [-o-]는 對立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minimal pair에 있어서의 音의 對立을 찾아내는 것이 音素를 設定하는 唯一한 方法이 된다고 하겠다.

1. 4,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미리 말해 둘 것은 方言에서의 “e”母音을 設定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方言의 言語表現에서 하되 그것

은 標準語 “e”音語에 該当되는 말에 限해서 調査, 設定한다는 点이다. 다시 말하여 標準語의 “ε” 音만을 놓고 그것이 方言의 言語表現에서는 “e”로 實現되는가, “e”와 “ε”로 實現되는가, 또는 “ε”로 實現되는가를 考察하고 나아가 方言에서의 “ε”母音이 他母音에 對해서 minimal pair contrast(最小의 對立)을 이루어 獨立된 音素로서 存在하는가 안하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또 標準語의 “ε”가 “e”로 實現되는 境遇 그 “e”는 어디서 온 것인가. 다시 말하여 標準語에서의 “ε”音이 方言 어떤 말에서는 “ε”로 나타나고 또 어떤 말에서는 “e”로 나타나는데 이 “e”는 어디서 온 것인가를 文献語를 參照하면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本稿에서 方言을 記述함에 있어서는 音素分析의 便宜上 다음과 같이 羅馬字를 使用하기로 한다.

子音; ㅁ = p, b ㅂ = pp ㅍ = ph ㄷ = t, d
 ㅌ = tt ㅈ = th ㅋ = k, g ㆁ = kk
 ㅋ = kh ㅅ = s ㅆ = ss ㅇ = h
 ㅈ = c, z ㅊ = cc ㅌ = ch ㄹ = m
 ㄴ = n ㅇ = ɠ ㄷ = r, l

母音; ㅣ = i ㅑ = e ㅓ = ε ㅡ = u
 ㅏ = a ㅓ = ə ㅜ = u ㅗ = o
 ㅛ = v ㅕ = ja ㅛ = jε ㅛ = jə
 ㅑ = je ㅛ = jo ㅜ = ju ㅛ = jv
 ㅑ = wa ㅛ = wε ㅛ = wo ㅑ = we
 ㅑ = wi ㅑ = wi

2. 標準語 “ε”에 對한 方言母音考察

(1) 方言同義語에서의 “e, ε”音

2.1.1, 標準語에서 “ε”로 되어 있는 말이 濟州島方言의 言語表現

(utterance)에서는 어떤 ㅍ으로 實現되는가를 具體的인 言語表現에서 調査해 보기로 한다. 그를 調査함에 있어서는 標準語에서 “ㅍ”음을 가진 말을 내세워서 그 말의 ㅍ이 方言의 言語表現에서는 어떻게 實現되어지는가를 具體的으로 調査, 記述하여 나가기로 하겠다.

<u>St. Lang.</u> (註②)	<u>utterance</u>
코래 (鯨)	[kore], [korɛ]
코대 (方今)	[kode], [kodɛ]
넛내 (煙臭)	[netne], [netnɛ]
돛대 (檣竿)	[totte], [tottɛ]
부채 (扇子)	[phunche], [phunchɛ]
코쟁이 (串)	[kozepi], [kozɛpi]
막대기 (杖)	[maktegi], [maktegiɛ]
보내다 (送)	[poneda], [ponɛda]
볼때기 (頰)	[polthegi], [polthɛgi]
허깨비	[hətke], [hətkeɛ]
도깨비	[tochebi], [tochebiɛ]
나뭇깨비 (木一)	[napkkegi], [napkkegiɛ]
부지쟁이 (火杖)	[puzithepi], [puzithepiɛ] etc

여기서 보는 바와같이 標準語의 “ㅍ”음이 方言의 言語表現에서는 “ㅍ”음으로 實現되기도 하고 “ㅍ”음으로 實現되기도 한다. 이런 現象은 漢字語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漢字語의 言語表現을 調査해 보기로 한다.

<u>St. Lang.</u>	<u>utterance</u>
대개 (大概)	[tege], [tegeɛ]
감태 (甘苔)	[kamthe], [kamtheɛ]
명태 (明太)	[menthe], [mentheɛ]

공새(空車)	[koŋche], [koŋchɛ]
감개(感慨)	[kamge], [kamgɛ]
포태(胞胎)	[phothe], [phothɛ] etc

이러한 例 卽 第二音節에서 “e”가 나타나기도 하고 “ɛ”가 나타나기도 하는 言語表現의 現象은 調査範圍 如何에 따라서는 純粹國語의 方言에서나 漢字語의 方言에서나 그 數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相當히 있으리라 본다.

2. 1. 2, 그런데 이와같이 同一한 位置 同一한 音聲環境(phonetic environment)에서 나타나는 “e”와 “ɛ”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同一한 音聲環境(phonetic environment)에서 나타나는 差異 있는 두 音이므로 이것을 相補的分布(complementary distribution)라고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e”와 “ɛ”를 서로 交替하여 넣더라도 그 말의 知的意味에 差異가 생기지 않는다. 이와같이 두 音이 同一音聲環境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서로 交替해 넣더라도 그 말에 知的意味의 差異가 생기지 않을 때는 그 두 音은 同一音素의 自由異音(Free variant)이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e”가 “ɛ”의 自由異音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ɛ”가 “e”의 自由異音이 되던지 하게 된다. 이에 對해서는 다음에 다시 言及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만 그치 두기로 한다.

(2) 方言에서의 “e” 音

2. 2. 1, 濟州島方言에서는 標準語의 “ɛ” 音이 2.1. 에서 본 바와 같이 “e”, “ɛ”로 混同되어 나타나기만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서 같은 第二音節에서이지만 그 “e”와 “ɛ”가 儼然히 區分되어 表現해지는 現象들도 있다. 먼저 標準語의 “ɛ” 音이 第二音節에서 “e”로 나타나는 言語表現을 調査해 보기로 한다.

<u>St. Lang.</u>	<u>utterance</u>
금새 (價格)	[kwumse]
노래 (歌)	[nolle]
담배 (煙草)	[tambe]
모래 (沙)	[molle]
베개 (枕)	[pege]
아래 (下)	[are]
어깨 (肩)	[ække]
첫해 (初年)	[chæthe] etc

이들 말에서는 그 第二音節에서의 “e”가 “ε”와 混同되어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 나지 않는다. 굳이 “ε”로 發音을 하려면, 쏠혀 못할 바는 아니지만 日常 自然스러운 言語表現으로서 第二音節에서 “ε” 發音이 아니되어 진다 하여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言語表現은 또 漢字語에서도 나타난다.

<u>St. Lang.</u>	<u>utterance</u>
동내 (洞內)	[topne]
사생 (死生)	[sɔsep]
퇴색 (褪色)	[thwesek]
포대 (布袋)	[phude]
동생 (同生)	[topsep]
흑백 (黑白)	[hwkpek]
오백 (五百)	[obek]
혈맥 (血脈)	[sælmek] etc

이들 말에 있어서도 第二音節의 “e”가 “ε”로 發音되어지는 일은 좀처럼 없다. 2. 1. 에서 본 바의 말들과는 쏠혀 그 傾向을 달리 하는 것이다.

2. 2. 2, 2. 2. 1, 은 第二音節에서 標準語의 “ε” ㅍ이 “e” ㅍ으로 方言에서 實現되어지는 境遇이었지만 다음은 第一音節에서 標準語의 “ε” ㅍ이 어떻게 實現되어지는가를 方言의 言語表現에서 調査해 보기로 한다

<u>St. Lang.</u>	<u>Utterance</u>
대패 (鎚)	[tephe]
깨다 (破)	[kkeda]
대가리 (頭)	[tegarı]
매우 (甚히)	[meu]
깨다 (醒)	[kkeda]
깨달다 (覺)	[kkedotta]
대하다 (對-)	[tehoda]
배다 (姪)	[peda]
개미 (蟻)	[kejəmzi]
때리다 (毆打)	[tterida]
배암 (蛇)	[pejəm]
새다 (漏)	[seda]
새뜨다 (間-)	[settuuda]
배우다 (學)	[peuda]
셋길 (間路)	[setcil]
생각 (思)	[seŋgak]
캐다 (採)	[kheda]
햇빛 (日光)	[hetpit]
태우다 (賦)	[theuda]

여기서 標準語에서의 “ε” ㅍ이 그것도 첫音節 “ε” ㅍ이 方言에서는 “e”로 實現됨을 본다. 또 이런 例의 말들은 調査에 따라서는 相當히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첫音節에서의 “ε” ㅍ이 “e”로

實現된다는事實! 이것은 濟州島 方言에 “e” 母音이 存在하느냐 안 하느냐를 決定지워 출만큼 重大한 考證의 資料가 되는 것이라겠다.

이런 첫音節에서는 秋毫도 그 “e”가 “e”로 實現되어지는 일은 없다. 明瞭하게 “e”로 實現되어질 뿐이다.

이 標準語의 첫音節 “e”音이 方言에서 “e”로 實現되어지는 말들은 漢字語에도 있다. 다음 그들 말을 調査해 보기로 한다.

<u>St. Lang.</u>	<u>Utterance</u>
객선(客船)	[keksən]
개량(改良)	[kerjap]
내외(內外)	[newe]
개명(改名)	[kemen]
대지(垓地)	[tezi]
개회(開會)	[kehwe]
대대(代代)	[tede]
내일(來日)	[neil]
대리(代理)	[teri]
매일(每日)	[meil]
대접(待接)	[tezəp]
대답(對答)	[tedap]
배추(白菜)	[pechi]
매장(每場)	[mezəp]
대우(待遇)	[teu]
책상(冊床)	[cheksəp]
재간(才幹)	[cegan]
백미(白米)	[pekmi]
배후(背後)	[pehu]
생일(生日)	[sepil]

액수(額數)	[eksu]
책갑(冊匣)	[chekkap]
냉수(冷水)	[nep̄su]
재래(在來)	[cere]
백성(百姓)	[p̄eksəŋ]
행동(行動)	[hepdop]
재배(再拜)	[cebe]
재봉(裁縫)	[cebop]
채소(菜蔬)	[cheso]
채집(採集)	[chezip]
색채(色彩)	[sekche]
해변(海邊)	[heben]
재목(材木)	[cemok]
해방(解放)	[hebap] etc

이 第一音節에서 “ε”가 “e”로 實現되어지는 말들은 그 數가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相當히 있을 것 같다.

2. 2. 3, 單音節語에 있어서도 標準語의 “e”가 方言의 言語表現에서 “e”로 實現되어지는 말들이 있다.

<u>St. Lang.</u>	<u>Utterance</u>
때(垢)	[the]
내(煙)	[ne]
배(船)	[pe]
배(腹)	[pe]
배(梨)	[pɛ]
재(灰)	[ce]
해(太陽)	[he] etc

와 같은 말들이다.

2. 2. 4, 標準語 第一音節의 “ε”가 方言에서 “e”로 實現되어진다는 것은 第二音節에서의 “ε”가 “e”로 되어지는 것과는 그 質을 달리 하는 것이라겠다. 흔히 音韻變化를 말할 때 그것이 第一音節에서나 或은 第二音節에서나를 따지게 된다. 第一音節에서면 거의 前後者의 影響을 받음이 없이 獨自의으로 發達한 變化라 하게되고 第二音節에서면 前後音에 이끌려서 일어나는 變化라 하게된다. 第二音節에서는 이 이끌려지는 前後音의 影響뿐만이 아니라 그 音節位置가 또한 特異한 性格을 지니게된다. 即 第二音節의 位置에서는 音節母音의 分節의 不明瞭 또는 聽覺印象의 不分明이 따르게된다. (註13) 따라서 第二音節에서의 “ε”가 “e”로 나타나는 것은 或 前後音의 영향 또는 分節의 不明瞭로 말미암아 가져와지는 것이라고 境遇에 따라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第一音節에서의 “ε”가 “e”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런 前後音의 影響을 받음이 없이 實現되어지는 것으로 그 音自體의 本然의 것이라하게되고 따라서 매우 重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方言에서의 “e”音

2. 3. 1, 2. 2. 에서 標準語의 “ε”가 方言에서는 “e”로 表現되는 그 많은 Utterance를 보아왔다. 그것들을 가지고 볼 때 標準語의 “ε”音은 方言에서는 全部 “e”로 實現되어지지 않나? 하는 推測까지 하게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들을 方言의 日常 言語表現에서 들을 수 있다. 먼저 標準語 第二音節에서의 “ε”音이 方言에서도 “e”로 나타나는 言語表現을 調査해 보기로 하겠다.

<u>St. Lang.</u>	<u>Utterance</u>
네댓(四五)	[nədet]
물매(一鞭)	[mulmε]

어이새끼(母子)	[uisekki]
첫새끼(一雛)	[chetsekki]
콧대(鼻-)	[khotte]
포개다(重疊)	[phogéda]
화내다(火-)	[hwanéda] etc

이들 말에 있어서 그 第二音節에서의 “e”가 “e”로 바뀌지는 일은 좀처럼 없다. 第二音節이라는 位置的 條件에서 자칫하면 그 發音이 不明瞭하여지기 쉽고 또한 聽覺印象도 不分明하여지기 쉬운 터인데 언제나 明瞭하게 “e”로 發音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聽覺에도 들린다.

2. 3. 2, 2. 3. 1은 標準語 第二音節에서의 “e”가 “e”로 表現되는 境遇이었지만 다음은 標準語 第一音節에서의 “e”가 方言에서도 “e”로 나타나는 言語表現을 調査해 보기로 한다.

<u>St. Lang.</u>	<u>Utterance</u>
갯가(浦邊)	[kektɔ]
내치다(擯)	[nechida]
개다(晴)	[keda]
내밀다(突出)	[nswatta]
내내(始終)	[nenap]
대여섯(五六)	[tejsɔt]
내달다(急走)	[nedɔtta]
대추(棗)	[techɔ]
새롭다(新)	[seropta]
내쫓다(黜)	[nezochida]
재다(敏速)	[ceda]
냄새(臭)	[neumsal]
대낮(一晝)	[tenat]

댓가지(竹一)	[tɛtkazi]
새기다(刻)	[sɛgida]
새다(曙)	[sɛda]
새달(新月)	[sɛdɔl]
새벽(晨)	[sɛbɛk]
새서방(新郎)	[sɛsɔwbap]
새암하다(嫉妬)	[sɛumhɔda]
애쓰다(勞心)	[ɛssuda]
재우다(就寢)	[ɛuda] etc

方言 第一音節에서 “ɛ”음으로 나타나는 言語表現들은 이 외에도 그 수가 相當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方言의 第二音節에서 “ɛ”로 나타나는 言語表現들도 重視해야 할 것이지만 이 第一音節에서 “ɛ”로 나타나는 말들은 더욱 더 本稿에 있어서는 至極히 所重한 것들이다. 가장 發音이 明瞭해지고 또 聽取效果가 分明해지는 第一音節에서 나는 풀이니만큼 그 位置에서 다른 音과 混同되어질 리도 없는 것이다. 다음 漢字語의 第一音節에서 “ɛ”음으로 表現되는 말들을 調査해 보기로 한다.

<u>St. Lang.</u>	<u>Utterance</u>
대강(大綱)	[tɛgɑŋ]
패물(佩物)	[phɛ mul]
패전(敗戰)	[phɛ zən]
개별(個別)	[kɛ bel]
개판(蓋板)	[kɛ phan]
매상고(賣上高)	[mɛ sɑŋɡo]
애월(涯月)	[ɛ wəl]
채권(債權)	[chɛ kwən] etc

이런 말들도 調査에 따라서는 相當히 있으리라 보며 그 “ɛ”음

이 “e”나 其他音과 바뀌어서 實現되어 지는 일은 없다.

2. 3. 3, 單音節語에서도 標準語의 “ε”음이 方言에서 亦是 “e”로 나타나는 말들이 있다. 그들 言語表現을 調査해 보기로 한다.

<u>St. Lang.</u>	<u>Utterance</u>
개(犬)	[ke]
내(我)	[ne]
내(川)	[ne]
대(竹)	[tε]
때(時)	[tte]
매(鷹)	[mε]
매(鞭)	[mε]
새(鳥)	[sε]
해(多)	[hε] etc

와 같은 말들이다. 이러한 말들도 調査에 따라서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方言의 言語表現에서 第一音節에 “e”가 나타나는 것도 所重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單音節語가 “ε”로 表現되어지고 그런 말들이 相當數 있다는 것은 더욱 더 本稿에 있어서는 莫重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4) 方言에서의 “e, ε”음에 對한 吟味

2. 4. 1, 以上 2.의 (1), (2), (3)에서 各各 標準語의 “ε”음이 方言에서 어떻게 實現되어지는가를 보아왔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要約하여 적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A) 標準語 第二音節의 “ε”가 方言에 “e”와 “ε” 두 음으로 나타남

(B) 標準語의 “ε”음이 方言에서 “e”음으로 나타남

- (가) 標準語 第二音節의 “e”가 方言에서 “e”로 나타남
- (나) 標準語 第一音節의 “e”가 方言에서 “e”로 나타남
- (다) 標準語의 單音節語의 “e”가 方言에서 “e”로 나타남

(C) 標準語의 “ε”음이 方言에서 “ε”로 나타남

- (가) 標準語 第二音節의 “ε”음이 方言에서도 “ε”로 나타남
- (나) 標準語 第一音節의 “ε”음이 方言에서도 “ε”로 나타남
- (다) 標準語의 單音節語의 “ε”가 方言에서도 “ε”로 나타남

2. 4. 2, 이들에 對해서 다음에 項目別로 잠간 考察해 보기로 한다. 먼저 (A)의 標準語 第二音節의 “e”가 方言에서 “e”와 “ε” 두 音으로 實現되는 現象에 對해서 考察해 본다.

第二音節에서 “e”와 “ε”가 混同되어지는 現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同一音素의 自由異音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않고 發音의 不明瞭에서 가져와지는 混同이라 볼 것인지, 速斷 할 수 없는 터이다. 그런데 國語에서 다음과 같은 傾向이 흔히 있다고 한다. 卽 語辭의 表記에서

- 하늘~하늘(天)
- 마늘~마늘(蒜)
- 수풀~수풀(林)
- 스물~스물(二十)
- 가물~가물(旱)
- 구름~구름(雲)
- 담배~담배(煙草)
- 하물며~하물며(況)
- 노래기~노래기(虫名)
- 나그네~나그네(旅)
- 무지개~무지개(虹)
- 가운데~가운데(中)

와 같은 混亂이 있는다고 한다. (註14) 이 混亂은 音節位置 如何에서 가져와지는 것이라 한다. 卽 第二音節 以下란 位置에서는 母音의 分節의 不明瞭 또는 聽覺印象의 不分明이 흔히 隨伴하기 쉬운 것이라 한다. 第二音節에 비록 accent가 있는 경우라도 그 音節 構造 如何에 따라서는 分節이 不明瞭하여지기 쉽다고 한다. 이와같은 國語에서의 傾向은 非但 標準語에서만이 아닐 것이다. 第二音節에서의 分節의 不明瞭는 國語 一般의 現象이 아닐까 한다. 말하자면 方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現象은 일어나리라고 본다. 本項目이 되어있는 濟州島方言에서 第二音節 母音에 “e”와 “ɛ”가 混同되어 나타난다는 事實은 結局 第二音節에서의 音節母音의 分節의 不明瞭 또는 聽覺印象의 不分明에서 가져와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이것은 同一音素의 自由異音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各各 獨立된 音素이므로 第二音節이란 位置에서 分節의 不明瞭로 말미암아 “e”로 發音되기도 하고 “ɛ”로 發音되기도 한 것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標準語에서 混亂되어 일어난다고 하는 語辭

하늘~하늘(天)

마늘~마늘(蒜)

수솔~수솔(林)

나그네~나그네(旅)

노래기~노래기(虫名)

무지개~무지개(虹)

들에서 [u]와 [ɯ], [e]와 [ɛ]가 混同된다고 하여 音素論的 立場에서 [u]와 [ɯ], [e]와 [ɛ]를 同一音素의 自由異音이라 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問題하고 있는 “ɛ”音 自体가 아직 濟州島 方言에서 獨立된 音素로 設定을 보지 못한 段階이므로 이 두 “e”와 “ɛ”를 別個의 獨立 音素라고 여기서 斷定지을 수는 없는 次第이다. 그러므로 或 여기서 斷定할 수 있는

点이라면 第二音節의 同一環境에서 나타나는 “c”, “ε”가 同一音素의 自由異音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고 音節位置에 다른 分節의 不明瞭에서 가져와지는 混同이란 点이다. 萬一 이와 같이 分節의 不明瞭에서 “e”와 “ε”가 混同되는 것이라 한다면 何必 왜 이 “e”와 “ε” 두 音이 서로 混同되어 일어나느냐가 또한 問題이다. 그것은 이 두 音 사이에 그 音質에 있어서나 調音位置에 있어서 서로 近似한 点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点에 對해서는 다음에 가서 言及하러한다.

2. 4. 3. 1, 다음 (B)의 標準語에서의 “ε”音이 方言에서 “e”로 나타나는 境遇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境遇는 이것이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卽 第二音節의 “ε”音이 方言에서 “e”로 나는 경우, 第一音節의 “ε”音이 方言에서 “c”로 나는 경우, 單音節語의 “ε”音이 方言에서 “e”로 나는 경우이다. 다 같이 “e”로 表現되는 境遇라 하지만 第二音節에서 “c”로 나는 것과 第一音節이나 單音節語에서 “e”로 나는 것과는 그 質을 달리하는 것이라겠다. 第二音節에서 “e”音 그것이 비록 原語民(Native speaker)들의 發音意識上 다른 音과 混同됨이 없이 正確하게 發音해진다 하더라도 亦是 第二音節이라는 位置的 條件이 隨伴되지 않을 수 없다. 第二音節에서는 發音의 不明瞭, 聽覺印象의 不分明, 前後音의 影響等を 免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여기 標準語 第二音節에서의 “ε”가 方言에서 “e”로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音 自体의 本然의 것이 아니라 第二音節이라는 位置的 條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게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라리 (A)의 標準語 第二音節의 “ε”가 方言에서 “ε”와 “e” 두 音으로 나타나는 境遇에 넣어서 같이 論議야 할 것이다. 비록 이들 말에 있어서 原語民(Native speaker)의 發音意識上 “c”와 “ε” 두가지 音으로 나타나는 傾向은 없어서 (A)의 경우와는 쉰더 다른 것이라 하거되겠지만 그러나 第二音節이라는 位置的 條件에서 發音의 不明瞭, 前後音의 影

響等を 입음은 마찬가지라겠다. 그러므로 本項에서 論究할 對象으로서는 一旦 除外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그러면 다른 두 境遇 即 標準語 第一音節의 “e”음이 方言에서 “e”로 나는 경우와 單音節語의 “ε”음이 方言에서 “e”로 나는 境遇인데 이들은 그 數에 있어서 가장 많다. 單音節語는 그리 많지 않지만 第一音節에서 “e”로 나타나는 말들은 調査하기에 따라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相當히 있을 것이다. 이 絶對의 數의 方言에서의 “e”音化!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方言에서 어떤 말에 있어서는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ε”음으로 表現되는 말들도 相當히 있다. 標準語에서는 同一한 “e”음으로 나타나는 말들이 方言에서 어떤 말은 “e”로 나타나고 어떤 말은 “ε”로 나타난다, 이것은 大關節 어에서 오는 差異일까? 或은 이런 假想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即 이 兩者間의 差異가 音素의 單位로서가 아니라 音聲的 差異에 不過한 것이나 아닌지! 그러나 原語民 (Native speaker) 들은 이 두 음을 明白히 區分한다 그들은 (B)의 말들과 (C)의 말들을 이 두 음의 差異로 區別하고 있는 것이다. “e”와 “ε” 사이에 發音의 結果 그 表現差의 有無는 如何를 하고 두가지 ≪(B)와 (C)≫말에서의 音を 顯著하게 區別하여 意識하는 것만은 어길 수 없는 事實이다. 그렇다면 (B)에 있어서의 “e”와 (C)에 있어서의 “ε”와는 (A)의 境遇 即 方言 同義語에서의 “e, ε” 하고는 전혀 그 質을 달리하는 것이라겠다. 더구나 그것들이 單音節語 또는 第一音節에서의 分節이고 보니 發音過程에 있어서 어떤 制約이 있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그들 “e”와 “ε”는 各其 그 音 自体의 本然의 것이라 하게된다. 그러면 本項의 “e”에 對하여 文獻上에서 參照하며 살펴 보기로 한다.

2. 4. 3. “, 여기에서 方言에서의 言語 表現과 文獻語들을 對照시켜 보겠다.

utterance 文獻語

[tephe] (鉤)	더과 (鉤) <訓中16> (註16)
[tegarı] (颯)	더골로 (頰) <訓上24>
[kkedotta] (覺)	씨돈다 <釋譜3,20>
[tehoda] (對一)	더답더 (對) <類合下40>
[peda] (姪)	빌임 (姪) <訓上33>
[pejam] (姪)	비얌 (姪) <月釋12:42>
[seda] (漏)	시논집 (漏舍) <圓覺上1의2,107>
[peuda] (學)	뵘홀혹 (學) <訓下31>
[settuda] (間一)	어느수어 <松江:星山別曲>
[sepgak] (思)	상각수 (思) <類合下11>
[kheda] (採)	킬척 (採) <類合下45>
[theuda] (賦)	뤼울부 (賦) <訓下2>
[hetpit] (日光)	헝도리 (日月) <杜解10:10>
[kekson] (客船)	손기 (客) <訓中3>
[newe] (內外)	안너 (內) <訓下34>
[kehwe] (開會)	열기 (開) <訓下1>
[teri] (代理)	구록출더 (代) <訓中1>
[meil] (每日)	물머 (每) <訓下24>
[cegan] (才幹)	저쫓척 (才) <訓下31>
[pekmi] (白米)	헝빱 (白) <訓中29>
[pehu] (背後)	등비 (背) <訓上27>
[senil] (生日)	날싱 (生) <訓上34>
[eksu] (額數)	니마릭 (額) <訓上24>
[chekkap] (冊匣)	척척 (冊) <訓上34>
[nepsu] (冷水)	출링 (冷) <訓下2>
[peksəp] (百姓)	온빱 (百) <訓下34>
[hepdop] (行動)	널링 (行) <訓下27>

[ceboŋ] (裁縫)	마를치 (裁) <訓下 19>
[cheso] (菜蔬)	노물치 (菜) <訓下 3>
[chezip] (採集)	질치 (採) <類合下 46>
[heben] (海邊)	바다희 (海) <訓上 4>
[tte] (垢)	뉘구 (垢) <訓下 18>
[ne] (烟)	너연 (烟) <訓下 35>
[pe] (船)	박선 (船) <訓中 25>
[pe] (腹)	腹은비라 <능解 9:64>
[pe] (梨)	비꽃 (爲梨花) <訓正解例>
[ce] (灰)	치회 (灰) <訓下 35>
[he] (日)	日月은 히 두리라 <釋譜 9:4>

여기의 utterance들은 2.2.2과 2.2.3에서 들어보인 標準語 第一音節과 單音節語의 “e”가 方言에서 “e”로 나타나는 境遇의 말들이다.

그런데 이 方言 “e”에 該當되는 文獻語의 音은 “i”이다. 여기 적어 놓은 어느 말을 보더라도 全部 “i”로 되어 있다.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의 “e” 音이 古文獻語 “i”에서 變해졌다는 것은 重大한 意義를 지니는 事이라겠다. 이것은 한갓 方言에서의 “e” 音을 밝히는 데에 云謂되어질 것이 아니라 方言에서의 “i” 音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重要한 論證의 資料가 된다고 하겠다. 濟州島 方言의 “i” 音에 對해서는 筆者는 “小考”를 發表한 바 있지만 이 “i”의 變遷面에서도 論究해질 點이 많다고 본다. 이것으로서 本項에서의 考察 對象인 方言의 “e”는 古語音 “i”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i”가 어떤 音이며 또 그것이 方言에서는 何必 왜 “e”로 變해졌느냐? 한데 對해서는 달리 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標準語 “e”에 對한 方言 “e” 音이 古語音 “i”에서 온 것이라는 點만을 밝혀둠에 그치려 한다.

2. 4. 4. 1, 다음 (C)의 標準語에서의 “e” 音이 方言에서 “e”로 나

타나는 境遇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경우도 이것을 다시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卽 第二音節의 “ε” ㅍ음이 方言에서도 “ε” 로 나타나는 경우, 第一音節의 “ε” ㅍ음의 方言에서도 “ε” ㅍ음으로 나타나는 경우, 單音節語의 “ε” ㅍ음이 方言에서도 “ε” 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여기서 다 같이 “ε” ㅍ음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第二音節에서 나타나는 “ε” ㅍ음은 거의가 合成語에서이다. 그러므로 이 第二音節의 경우는 除外하고 第一音節과 單音節語의 경우만을 考察의 對象으로 삼으려 한다. 이 第一音節과 單音節語에서의 “ε” 는 어떤 ㅍ음이 變해서 된 것인가를 亦是 文獻上에서 參照하며 살펴 보기로 한다.

2. 4. 4. 2, 여기에 方言에서의 言語表現과 文獻語와를 對照시켜 보겠다.

<u>utterance</u>	<u>文獻語</u>
[kekɔt](浦邊)	개보(浦) <訓上5>
[nɛchida](揷)	내달빈(揷) <類合下 16>
[keda](晴)	천구루미(晴雲) <杜解 7:31>
[newatta](突出)	내와다 <月釋 2:41>
[n ^ε nap](始終)	내내 <龍歌 16>
[tejɔsɔt](五六)	대엿(五六) <初朴通上 27>
[techo](糞)	대초조(糞) <訓上 11>
[sɾopta](新)	새뚝거노(新) <杜解 11:2>
[nɛcochid](黷)	내조출똥(黷) <訓下 30>
[neumsal](臭)	내취(臭) <訓下 13>
[seda](曙)	曙는날씨오 <능解 10:45>
[sebek](晨)	새태신(晨) <訓上 1>
[seumhɔda](嫉)	새움질(嫉) <類合下 31>
[phɛzɔn](敗戰)	히어딜패(敗) <訓下 22>

[kɛphan](蓋板)	두플개(蓋)〈訓中 13〉
[messango](賣上高)	풀매(賣)〈訓下 21〉
[ɛwəl](漚月)	굿갸애(漚)〈訓上 5〉
[chekwən](債權)	빌채(債)〈訓下 22〉
[nɛ](我)	내(我:내가)〈龍歌 50〉
[nɛ](川)	내천(川)〈訓上 4〉
[tɛ](竹)	대죽(竹)〈訓上 8〉
[ttɛ](時)	세톨아라(松江:思美人曲)
[mɛ](鷹)	대응(鷹)〈訓上 15〉
[mɛ](鞭)	매마자(釋譜 9:8)
[sɛ](鳥)	새드(鳥)〈訓下 3〉
[hɛ](多)	해드롬과(多閑)〈능解 4:2〉

여기의 utterance들은 2.3.2와 2.3.3에서 들어 보인 標準語 第一音節과 單音節語의 “ɛ”가 方言에서도 “ɛ”로 나타나는 境遇의 말들이다. 그런데 이 方言 “ɛ”음에 該當되는 文獻語의 音은 “ㅈ”이다. 여기 든 어느 말을 보더라도 全部 “ㅈ”로 되어 있다. 이것은 2.4.3.2에서 들어 보인 “ㄴ”와는 좋은 對照이다. 標準語의 “ɛ”에 對한 方言의 “ɛ”는 古語音 “ㄴ”에서 變化된 것인데 “ɛ”는 古語音 “ㅈ”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標準語에서는 두 경우가 다 “ɛ”로 나타나는데 方言에서는 “ɛ”와 “ㅈ”로 갈렸다. 말하자면 標準語에서는 古語音 “ㅈ”와 “ㄴ”이 다 함께 “ɛ”로 統一되어 變化해졌는데 方言에서는 “ㅈ”는 “ɛ”로, “ㄴ”는 “ㄴ”로 各各 따로 變化해진 것이다.

이것으로서 方言의 言語表現에 나타나는 “ɛ”와 “ㅈ”가 어에서 온 것인가를 밝히려는 셈이다. 標準語에서는 “ɛ”한 音素로 變化해 왔는데 方言에서는 두 音으로 갈려졌다. 이 두 音으로 갈려진 데 對해서는 달리 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方言의 “ɛ”와 “ㅈ”가 元來 各各 다른 音에서 變化해 온 것이라는 點만을 밝혀둔다.

3. 方言音素로서의 母音設定

3. 1, 2에서 標準語 “ε”음에 對한 方言의 音을 張皇하게 考察하여 왔다.

그리하여 方言의 具體的인 言語表現(utterance)에서 “e”와 “ε” 두 音이 나타남을 보았다. 原語民(Native speaker)들은 이 두 音을 分明히 別個의 音으로 意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여 發音한다. 그리하여 方言의 言語表現에서 어떤 말들은 “e” (H)音으로 發音을 해지는 것으로 認識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말들은 “ε” (K)音으로 發音을 해지는 것으로 認識을 하고 있다. 그런데 觀察者의 立場에서는 이 두 音의 發音結果를 聽取할 때 그 두 音 사이에 何等의 差異 點을 發見하기가 어렵다고들 흔히 한다. 그렇다면 이 두 音 “e”와 “ε”를 別個의 音으로 意識하는 것은 한낱 原語民(Native speaker)들의 主觀的인 發音意圖 發音理想에 不過한 것이어서 아무런 客觀性도 지니지 못하는 것이나 아닌지! 여기에 다시금 方言에서의 “ε”音에 對한 基本的인 考察이 必要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2에서 列擧한 方言의 具體的인 言語表現(utterance)에서 두 音이 各各 別個의 音으로 나타남을 보아왔지만 “ε”音이 方言의 母音組織體系上 獨立된 音素로서 存在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힐 必要가 있다고 본다.

3. 2, 그런데 어느 한 音素의 存在與否를 밝힘에 있어서는 母音全體의 組織體系上에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 音素를 論함에 있어서도 그 個個의 性質을 問題로 할 것이 아니라 한 音素가 다른 音素와 어떻게 差別되고 어떻게 對立되느냐에 더 重要性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于先 方言의 母音音素 全體에 對해서 暫간 記述를 보려고 한다.

<u>utterance</u>	<u>phoneme</u>
[pi](雨)	i

[pe](布)	e
[kɛ](犬)	ɛ
[kwu](其)	u
[kət](物)	ə
[kat](笠)	a
[put](筆)	u
[kot](處)	o
[kɔt](邊)	ɔ
[jedo](禮度)	je
[jɛ:gi](說話)	jɛ
[jərɔm](夏)	jə
[jap](羊)	ja
[ju](野荏)	ju
[jɔp](龍)	jo
[jɔp](側)	jɔ
[kwij](耳)	wi
[we](瓦)	we
[wɛ](倭)	wɛ
[wənsu](怨讎)	wə
[wap](王)	wa
[wiwən](醫員)	wi

여기 母音 22個를 實際의 言語表現(utterance)에서 抽出하여 내었다. 이 가운데서 單母音만을 추려내어 그것들이 機能的單位인 Phoneme(音素)으로서 設定이 되어지는가 안되어지는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音素 設定을 보기 爲해서는 一定한 音聲環境에서 그 音들의 minimal pairs를 調査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 環境 “p-t”에 依해서 方言 單母音 音素의 minimal pairs를 求해 보려고 한다.

minimal pairs phoneme

pit(負債)	i
pet(犬陽)	e
pət(朋)	ə
pat(田)	a
put(筆)	u
pot(胎)	o

이들은 minimal pairs를 이루고 있으며 [i], [e], [ə], [a], [u], [o]들은 각각 對立音이 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 假想的 音素(tentative phoneme) /i, e, ə, a, u, o/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주어진 環境 “p-t”에서 나타나지 않은 音 [ɛ]와 [w]와 [v]가 있다. 여기서 다시 二次로 [ɛ]와 [w]와 [v]가 위에서 minimal pairs를 보인 音들에 對해서 각각 minimal pairs를 이루느냐 못이루느냐를 調査해야겠다. 그들과 각각 한번씩 minimal pairs를 이루고 또 [ɛ]와 [w]와 [v] 相互間에 minimal pairs를 이룬다면 아홉 개의 音은 다 한번씩 minimal pairs를 이루는 셈이 되고 따라서 그들은 각각 獨立된 音素로서 設定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minimal pairs를 이루어 假定的 音素로서 設定을 본 /i, e, ə, a, u, o/ 各個와 [ɛ], [w], [v] 全部에 對해서 다시 minimal pairs를 求할 必要는 없지 않을까 한다. 假定的 音素 /i, e, ə, a, u, o/ 中에서 [ɛ], [w], [v]와 서로 suspicious pairs(비슷한 音, 의심스러운 音)만을 추려내어서 그것들 間에 minimal pairs를 이루는가를 봄으로서 充分하리라고 본다. [ɛ], [w], [v]와 suspicious pairs되는 音은 [e], [u], [a]이다. 이제 一定한 環境 “m-l”에서 이들 suspicious pairs(비슷한 音)의 minimal pairs를 求해 본다.

suspicious pairs minimal pairs

e : ε mel(海魚名):
 a : ʌ mal(斗):m말(馬)
 u : u mul(水):

이들에서 [a], [ʌ]만이 minimal pairs를 이루고 있고 “e:ε” “u:u”는 minimal pairs를 成立시키지 못하고있다.

여기서 다시 三次로 이 “e:ε”와 “u:u”와의 minimal pairs를 調査해 내지않으면 안된다 環境 “n-#”에서 求해 보겠다.

Suspicious pairs minimal pairs

e : ε ne(煙):ne(川)
 u : u nu(激波):nu(汝)

여기서 各各 minimal pairs를 이루고 있으며 [e], [ε], [u], [u]들은 各各 對立음이 되어지고 있다. 여기 再確證하는 意味에서 다시 한번 全母音에 對한 minimal pairs를 調査해 보기로 한다. 環境은 “k-tta”로 한다.

<u>minimal pairs</u>	<u>phoneme</u>
kitta(汲)	i
kutta(割)	u
kætta(步)	ə
katta(持)	a
kutta(不宜)	u
kotta(凍)	o
kötta(曰)	ʌ

여기에 對立音 일곱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ə”와 “e”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 음이 對立

음이 되어지고 있음은 어길 수 없는 事實이다. 다시 한번 이 두 음의 minimal pairs를 찾아보기로 한다.

suspicious pair minimal pairs

e . e	he(日):hs(多)
	te(代):tɛ(竹)
	tte(垢):tte(時)
	pe(船):pɛ(繩)
	se(舌):sɛ(鳥)
	me(鞭):mɛ(鷹)
	seda(漏):seda(曙)
	sebe(歲拜):sebe(晨)

이와같이 많은 minimal pairs를 얻을 수 있다. 이들 말에서 “e”와 “ɛ” 各各 機能的 單位로 最小의 對立음이 되어지고 있고 이 두 對立음에 依해서 語義가 分化되어지고 있다. 이 두 母音은 서로 最小對立의 쌍이 되어지고 있음은 勿論 위에는 日音 母音에 對해서도 各各 對立되어진다. 그것은 이미 앞에 든 여러 minimal pairs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에 依하여 알 수 있다. 여기에 이르러 濟州島方言에서 “e”는 單母音 /i/, /e/, /w/, /ə/, /a/, /u/, /o/ : /v/와 함께 獨立音素로서 存在한다고 斷定할 수 있게 되었다

以上 張皇하게 方言에서의 minimal pairs를 調查하면서 最小의 對立音으로 單母音 아홉을 設定하여 내었다. 따라서 여기 方言의 “e”音도 獨立된 音素로서 設定되어진 셈이다.

3. 3. 3.2에서 “e”와 “ɛ”는 各各 獨立된 音素로 設定되었다. 그 많은 minimal pairs에서 最小의 對立音으로 되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濟州島方言에서 “ɛ”와 “e”는 區別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들 한다. 李崇寧博士는

“……本是 二重母音 ai의 contract된 單母音 “e”는 [ɛ] - [e]의

間音인 [E]로 意識되나 年少層에는 오직 [e]로 發音함이 一般
이어서 “애, 에”間的 區別이 分明하지 않다……”(註17)

라고 指摘한 바가 있다. 그러면 이와같이 “ε”와 “e”가 區別이 단
되어지는 것은 무엇에 起因하는 것일까? 筆者는 이것을 濟州島方
言 “ε”의 性質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애”음이 [e]와 [ε]의 中間에서 發音되어진다는 것은 非但 濟州島
方言에서만이 아니고 南道 大部分의 地方에서 [e]와 [ε]의 中間音
即 [E]로 發音된다고 한다.(註18)

그런데 濟州島方言에서 “ε”는 [e]와 서로 가까운 位置에서 調音
되어지는 것 같다. 서로 가까운 位置에서 調音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發音結果의 음이 [e]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라 본다. 第二音節
以下の 分節位置에서 ㅐ양 [e]와 [ε]가 混同되어 나타남도 亦是 이
두 음이 서로 가까운 位置의 音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位置에서 나기 때문 서로 混同되어지기 쉽다 하더
라도 그것들이 方言의 母音組織體系上 各各 別個에 機能的 單位로
되어 있는다면 應當 그것들은 獨立音素로 認定받게 된다.

D. Jones에 있어서 매우 特異한 發音을 하는 英國人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그 사람의 母音은 普通 사람의 母音보다 훨씬 低母音
이어서 그 普通 사람(A)과 特異한 사람(B)과의 母音體系를 다음과
같이 對比시켜 놓았다.

A	B
i:	u:
i	u
e	i:…u:
	i u
ε ɔ:	e o
	ε ɔ:

æ ɔ æ ɔ
a a a a

여기서 音의 物理的 生理的 性質만을 比較한다면 (B)의 i:는 (A)의 e와 같고 (B)의 u:는 (A)의 o에 같다고 하게된다 그러므로 (B)의 發音은 좁 特異하게 들릴 터이지만 그를 理解할 수는 있는다. 그것은 (A) (B)間의 音의性質은 다르면서도 体系로서는 같은 對立關係에 있기 때문이다.(註19)

方言에서의 “e”가 그 音聲的 性質로 보아서는 標準語의 “e”하고는 쏠려 다를 것이다. 그것은 마치 D.Jones가 든 (A) (B)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音聲의 差異와도 恰似하다 할 것이다.

方言에서 “e”와 “e”가 잘 區別이 안 되어진다는 것은 結局 “e”음이 “e”하고 가까운 位置에서 調音해지기 때문이라겠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으로서 “e”를 獨立된 音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方言 “e”음이 母音組織體系上 뚜렷한 獨立音素가 된다 함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이다.

4. 結 語

4. 1, 以上 方言에서의 “e”음에 對해서 “e”와 關聯시키면서 考察하여왔다. 먼저 第二音節에서 “e”가 “e”와 混同되어 짐을 보았고 다음 第一音節과 單音節語에서 말에 따라 “e”와 “e”로 갈림을 보았다. 그리하여 이 두 音이 各各 機能的 單位인 最小의 對立音이 되어짐을 보고 나서 “e”를 方言에서 單母音 音素로 設定하였다. 이 “e”에, 對한 論究로서는 實驗音聲學的인 考察과 多角的인 規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考察은 後日로 미루고 여기서 以上 말해온 바 重要한 點만을 要約하여 끝맺으려 한다.

4. 2, 方言의 “e”기 第二音節에서 “e”와 混同되어 나타남은 분

節의 不明瞭, 前後音의 影響에서 오는 것이다.

4. 3, 標準語의 “ε”음이 方言 第一音節과 單音節語에서 “e”로 나타나는 것은 元來 “i”에서 變해진 것이다.

4. 4, 標準語의 “ε”음이 方言 第一音節과 單音節語에서 “ε”로 나타나는 것은 元來 “i”에서 變해진 것이다

4. 5, 方言에서 “ε”音은 機能的 單位가 되어 minimal pairs를 이루고 獨立된 音素로서 存在한다.

4. 6, 方言에서 “e”와 “ε”가 區別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ε”의 調音位置가 “e”와 가깝기 때문이다.

【 註 】

1. 李熙昇 “國語學概說” P. 87
2. 崔鉉培 “우리말본” P. 53
3. 許 雄 “國語의 音韻” <—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P. 669>
4. 김석득 “음운분석론” <“한글”동권 제126호 P. 78>
5. 金敏洙 “國語의 音素와 그 排列” <高麗大學校文理論集 文學篇 第6輯 P. 8>
6. 李崇寧 “國語學概說” P. 153
7. 許 雄 “國語音韻論” P. 52
8. “ ” P. 51
9. “旁點研究” <延世大學校東方學誌 第二輯 P. 66>
10. 太田朗 “米語音素論” P. 13
11. “構造言語學” P. 17
12. “St. Lang”는 標準語를 나타내고 “utterance”는 方言의 言語表現(發話)을 말함
13. 李崇寧 “‘·’音攷再論” <學術院論文集第一輯 P. 116>
14. “ ” < ” P. 118>
15. 拙 稿 “濟州島方言 ‘·’音小考”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6. 여기서 引用한 文獻名은 다음과 같음. 訓=訓蒙字會, 釋譜=釋譜洋節, 類合=新增類合, 月釋=月印釋譜, 圓覺=圓覺經疏解, 杜解=杜詩疏解, 능解=능해經疏解, 訓正解例=訓民正音解例本, 龍歌=龍飛鄉天歌, 初朴通=初刊

朴通事彙解。

17. 李崇寧 “國語學論攷” P.281
18. 河野六郎 “朝鮮語方言考試一缺語考一” P.29
19. 太田朗 “米語音素論” P.40